

동아쏘시오홀딩스 '24년 연간 실적발표 스크립트

'24년 연간 연결실적

- 연간 영업수익(매출)은 주요 사업회사인 동아제약, 용마로지스, 에스티젠바이오 등의 외형 성장으로 17.8% 성장한 1조 3,332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수석의 글라스 공장 이전에 따른 수율 정상화 지연, 동천수의 음료 신공장 가동에 따른 고정비 증가, 등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6.8% 성장한 821억원 기록. 홀딩스는 '13년 지주회사체제 전환 후 지속적으로 견고한 실적 성장 지속.

주요 사업회사

동아제약

- 연간 매출은 박카스, 일반의약품, 생활건강 등 전 사업부문의 성장으로 7.6% 증가한 6,787억원 기록. 특히 일반의약품사업부문이 15.9%로 크게 상승. 영업이익은 7.0% 성장한 852억원 달성. 동아제약의 지난 5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을 보면 13.1%로 꾸준한 성장 지속해 왔고 '25년, 올해도 그 추세를 이어갈 것. '24년 4분기 큰 폭의 영업이익 상승은 기저현상과 4분기 상품원가에 일회성 환급금 반영에 따른 것.
-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박카스부문은 3.0%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일반의약품부문은 피부외용제인 노스카나, 애크논, 멜라토닝의 고성장으로 15.9% 증가. 노스카나(171→209억원)와 애크논(126→203억원)은 200억원을, 멜라토닝(85→116억원)은 1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 달성. 생활건강부문은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예상했으나 주력제품인 오쏘몰의 미투제품과 다경쟁 영향으로 3.8% 증가. 오쏘몰은 연간 1천억원이 넘는 메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지속 성장 중이며 작년 8.1% 성장한 1,302억원. 오쏘몰은 브랜드 오리지널리티 강조와 신제형(그래놀, 서방형vitC) 추가 발매 등으로 지속 성장할 것. 더마 브랜드 파티온은 작년에 매출 200억원 돌파. '23년 132억원에서 62.0% 증가한 213억원 달성. 국내 매출 성장과 함께 중국, 일본, 미국 판매 등 해외 판매 성과. 중국은 주로 틱톡, 티몬글로벌, 일본은 큐텐, 아마존, 미국은 현재 아마존 통해 런칭했으며 세포라와 얼타 등 코스메틱 매장이거나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 파티온의 해외 판매는 온라인을 통해 먼저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해 나갈 계획. '25년 동아제약은 지난해와 비슷한 기조로 성장 예상. 일반의약품부문은 피부외용제 및 파워브랜드 성장과 신제품 출시로 두 자릿수 성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박카스는 3월 D와 F 가격인상을 통해 4~5% 안정적 성장 가능. 생활

건강은 오쏘몰의 지속 성장과 신제품 출시, 더마브랜드 파티온은 해외 판매 본격화로 큰 폭 성장 기대.

에스티젠바이오

- 연간 매출은 스텔라라BS 이물도사의 미국, 유럽 품목 허가에 따라 유럽향 상업화 매출 발생으로 14.4% 성장한 589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지난 2015년 물적분할로 회사 설립 후 최초로 연간 흑자 17억원 달성.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스텔라라BS 이물도사의 유럽('23년6월), 미국('23년10월) 허가신청 따라 전용 생산site인 에스티젠바이오는 지난 6월, 7월 FDA와 EMA로부터 cGMP 실사를 받았고, 9월 EMA, 10월 FDA로부터 모두 cGMP 인증을 획득하여 글로벌 CMO 기반 마련. 이물도사는 지난 10월 FDA, 12월 EMA 품목허가를 득해 유럽은 국가별 순차적으로 발매 중이며, 미국은 오리지널사와의 특허 합의에 의해 5월 발매 예정. 에스티젠바이오는 올해 이물도사 유럽, 미국 발매에 따른 상업화 물량 증가로 매출이 크게 증가 예상. 또한 생산안정화 및 효율화를 통해 이익 개선폭도 확대할 예정.

용마로지스

- 연간 매출은 적극적인 신규 화주 유치와 K-뷰티, K-푸드 열풍으로 화장품/식품 물류 증가에 힘입어 12.5% 성장한 4004억원. '21년에 매출 3,000억 돌파 후 3년만에 4,000억원 달성 쾌거. 영업이익은 매출 성장과 화주와의 물류 단가 조정 및 운용 효율화로 38.6% 성장한 190억원 달성. 올해 용마로지스는 신규 화주뿐 아니라 물류 영역 확대, 지속적 K열풍 지원으로 성장 가능. '26년까지 용마로지스는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27년 안성 신허브센가 완공/가동되면 다시 크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

홀딩스는 매년 주요 사업회사인 동아제약과 용마로지스의 볼륨 있는 성장으로 견고한 실적을 개선해 왔음. 올해는 동아제약과 용마로지스 성장뿐 아니라 에스티젠바이오의 성장 기대. 작년 에스티젠바이오는 FDA, EMA로부터 cGMP 인증을 획득하여 글로벌 CMO 회사 기반을 마련했고, 그룹의 파이프라인 이물도사의 상업화 초기 매출을 통해 흑자전환에 성공. 올해 에스티젠바이오는 이물도사 글로벌 매출 성장과 함께 본격적인 매출 상승이 기대되어, 홀딩스 역시 그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한해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